



광주경제 뉴 엔진 '투자유치기업'이 편다

청정자연에서 얻은 재료 소비자들 건강을 마신다

3 웰빙 1번지 음료기업

마시는 것 하나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추세 속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기업이 삼애다원과 (주)연수당 복분자주이다. 이들 업체들은 호남의 청정 자연에서 엄선된 원재료를 근간으로, 깊은 맛과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지역과 전국의 소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

삼애다원은 의재 허백련 선생이 무등산에 직접 재배해 마신 춘설차를 주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1993년 창립 이후 16년째 춘설차만을 생산하고 있는 삼애다원은 무등산에 모두 15만㎡에 이르는 운모질 부엽토의 차밭을 소유하고 있다. 아찔이면 구름이 스쳐가고,



춘설차



산머루와인

연수당 복분자주(360ml), 블랙복분자와인(300ml), 오디 열매를 주원료로 한 연수당 뽕(300ml), 머루 열매를 주원료로 한 연수당 산머루 와인(300ml) 등 4개 제품을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삼애다원 춘설차 광주 전통식품 1호 연수당 복분자주 여성들에게도 인기

낮이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천혜의 차밭인 이곳에서 화학비료나 농약 등 일체의 인공적인 농법을 배제하고 오로지 무등산의 청정한 땅기운으로만 매년 5~10t 가량의 차를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춘설차는 그 품질과 맛에서 여타의 녹차와 비교할수 없는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 지역 특산물 전통식품 제1호이다.

삼애다원의 오현용(34)씨는 "춘설차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토종 녹차의 깊은 맛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 녹차보다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고 말했다. 삼애다원의 춘설차는 아시아항공과 대한항공의 기내식, 유명호텔에 납품되고 있다.

(주)연수당복분자주는 산딸기인 복분자를 주재료로

광주시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산업자원부 신기술사업자 선정(두통과 숙취가 없는 생리활성 건강민속주 개발), 농림부 한국전통식품 BEST5선발대회 대상(대통령상)수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수평가 기업 등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3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주)연수당 부설 주류식품연구소'를 설립해 신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연수당 복분자주는 특히 조선대와의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알코올 속에 있는 '퓨젤유(Fuselol)'와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 등 환원성 물질로 인한 두통과 숙취를 해결해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대표 제품인 연수당 복분자주는 복분자에 17가지 한약재를 첨가해 제조하는 데, 복분자 재배의 최적기인 6~7월에 잘 좋은 복분자 과실을 따 녹용과 한약, 머루, 백련초 등 한약재를 첨가한 후 빻어낸다. 전통 발효 방법으로 저온숙성해 색상과 향이 독특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정부, 경기빠른 속도 회복 전망 “경제여건 감안 성장률 5% 무난”

정부는 우리나라의 내년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2만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14일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4년 전 수준인 1만7천달러 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2%, 내년 5.0%로 전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천달러 수준, 내년에는 2만달러를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각종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

히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태래 재정부 차관보도 내년 1인당 국민총소득에 대해 “환율 요인이 크지만 내년에 5%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기에 2만달러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1만2천100달러, 2003년 1만3천460달러, 2004년 1만5천82달러, 2005년 1만7천531달러, 2006년 1만9천722달러를 기록했다가 2007년 2만1천695달러로 2만달러 대를 돌파한 뒤 2008년 경제 위기로 1만9천231달러까지 감소했다.

즉 올해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7천달러 대에 이르더라도 2005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내년엔 2만달러를 돌파해도 2007년 수준에 머무는 셈



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높아야 할 1인당 국민 소득이 내년이 돼도 3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1인당 국민 소득이 내년엔 2007년 수준인 2만달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경제지표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의 산타우체국

서광주우체국 등 24일까지 운영

서광주우체국은 16~24일까지 '사랑의 산타우체국'을 운영한다. 산타우체국은 서광주우체국을 비롯해 서울중앙, 서울영동, 남인천, 동수원, 부산, 대전둔산, 군산, 제주우체국 등 모두 11곳에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우체국은 안과 밖이 산타마루로 꾸며지고 직원들은 산타모자와 산타옷을 입고 고객을 맞는다. 집배원은 산타옷을 입고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고 특히 전국의 불우이웃에게 쌀과 화용품, 기타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도 나눠준다.

서광주우체국은 '산타우체국 꾸미기 포토존'을 설치해 산타차림을 한 직원들이 고객들과 함께 사진 찍어 메일로 전송해 주는 행사를 연다. 또 22~24일에는 유치원 어린이를 초청해 '산타클로스'와 함께 꿈과 사랑을 행사 열어 요술봉선 제작 등 각종 이벤트를 해준다. 신청은 서광주우체국 우편영업팀(062-603-7133)으로 하면된다.

산타우체국에서는 또 담당지역에 한해 어린이나 불우이웃에게 보내는 카드나 선물을 산타옷 차림의 집배원이 직접 배달한다. 접수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산타우체국에서 이뤄진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14일 오전 산타우체국으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동수원우체국에서 산타 복장을 한 직원 우체국 내부를 성탄절 분위기에 맞게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세대 이동통신 LTE

삼성전자 세계 첫 상용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 Long Term Evolution) 단말기의 상용 서비스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14일 북유럽 최대 통신사인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가 삼성전자의 LTE 단말기인 'GT-B3710'을 통해 세계 최초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GT-B3710'은 노트북이나 넷북 등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USB Dongle 타입으로, 2.6기가헤르츠(GHz)대 LTE 서비스를 주파수를 지원한다.

이 단말기는 자체 개발한 LTE 모델 칩 '칼미아'(Kalmia)가 탑재됐으며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GPP)의 최신 표준인 3GPP LTE 릴리스 8 규격에 맞춰 제작됐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단말기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9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충청점: (092) 227-9970
 목포점: (061) 262-8280
 덕산점: (063) 851-2422



퍼시스 소품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퍼시스 소품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FURSYS | ITEMS | bloom